

중국內 외자기업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전망

2007년 제4회 한·중경제포럼

1. 주제 : 대외개방 신 단계의 외자기업의 새로운 추세
2. 일시 : 2007. 6. 21(목) 16:00~20:00
3. 발표자 : 중국상무부 국제경제무역협력연구원 다국적기업연구중심 왕즈러(王志樂)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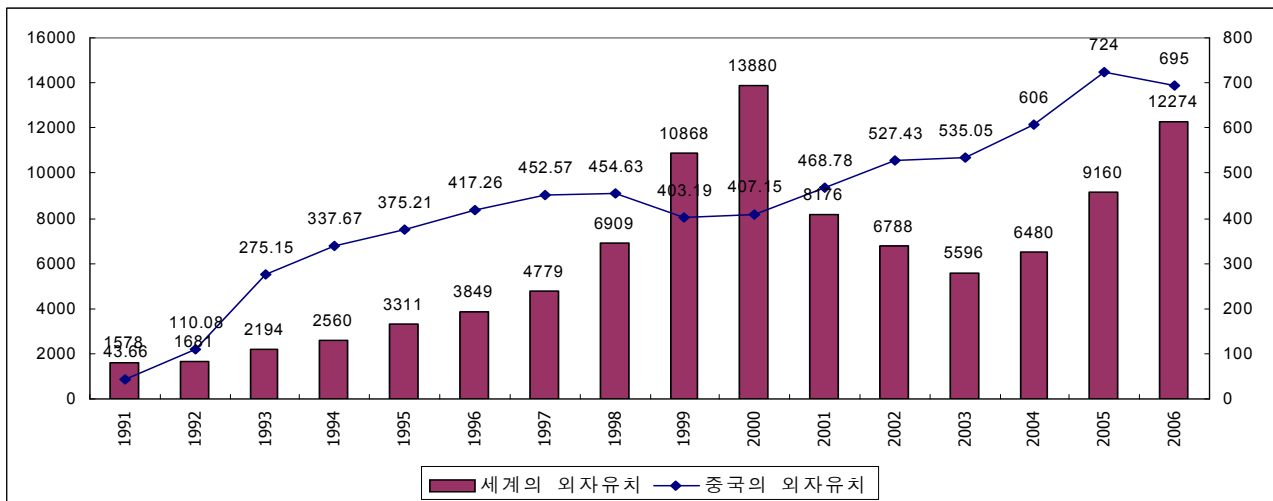
1. WTO 가입과 중국 대외경제의 발전

- 중국의 대외개방 수준은 WTO 가입 이후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현재 중국경제의 여러 부문에 걸쳐 많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진출함.
- 제조업 부문은 전면적인 대외개방이 이루어졌으며, WTO 분류에 따른 160개 서비스무역 가운데 100여 개가 개방됨으로써 개방정도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근접함.
- 은행, 보험, 증권, 소매 등의 분야도 예정된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개방이 추진되고 있음.
- WTO 가입은 중국 대외경제(대외무역, 외자유치, 대외투자)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한 계기로 작용함.

-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WTO 가입 이후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2006년 대외무역은 1조 7,000억 달러에 달함으로써 중국은 세계 3대 무역국가로 부상
- 중국의 외자유치 규모는 1990년대 후반 매년 400억 달러 규모였으며, 1998년을 전후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WTO 가입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인 끝에 2005년 사상 최고인 724억 달러를 기록

<그림 1> 중국의 외자유치 추이와 세계 외자유치 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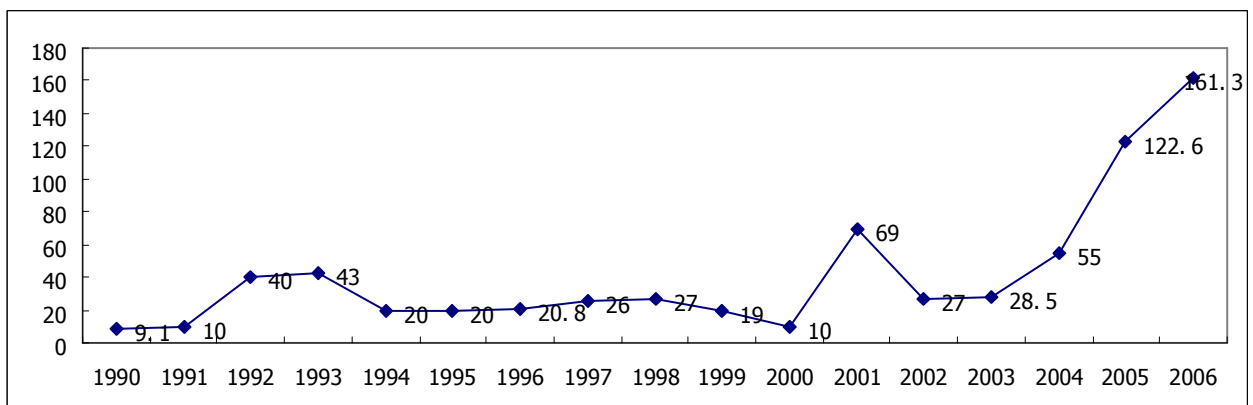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또한 중국의 대외투자 역시 2000년 10억 달러에서 2006년 161억 달러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

<그림 2> 중국기업의 대외투자 추이(1990년 ~ 2006년)

(단위: 억 달러)



□ 1978년 대외개방 이후 28년 동안 중국 대외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WTO 가입 이후 5년간의 대외경제 발전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기록한 대외무역, 외자유치, 대외투자 중 WTO 가입 이후 5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8%, 43%, 59%임.

<표 1> 중국 대외경제의 발전 현황

(단위: 억 달러)

	1978~2006	2002~2006	WTO가입 이후5년/ 대외개방 이후 28년	1978	2006
대외무역	99341	58095	58%	206	17607
외자유치	6919	2967	43%	7	695
대외투자	733	431(03~06)	59%	-	161

2. 중국 외자기업의 발전 과정 및 특징

가. 외자기업의 단계별 발전 과정

□ 중국내 외자기업의 발전은 시기적으로 3 단계 과정을 거침.

- 첫 번째 단계는 1979~1991년으로 이 시기의 외국인투자는 실험적 성격이 강했으며 투자 규모 역시 미미함.
- 두 번째 단계는 1992~2001년으로 외자가 대규모로 진입한 시기임.
- 세 번째 단계는 전면적인 외자가 진입한 시기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임.

나. WTO 가입 이후 외자기업 투자의 특징

1) 투자프로젝트의 시스템화(Systemization of Investment Projects)

□ 외자기업은 제조업 가치사슬 각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생산·조립 부분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설계의 상류 각 부분, 마케팅 서비스 등 하류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여 가치사슬 양방향 모두의 발전을 도모함.

2) 투자방식의 다양화

□ 신규 투자로부터 인수합병, 합자투자에서 독자투자로의 전환이 나타남.

- 에머슨사가 화웨이(华为)산하기업인 안성(安矰)전기를 인수한 것, 파나소닉이 합자기업에서 독자기업으로 전환한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 2006년 한해에만 상무부가 비준한 외자기업의 인수합병은 1,300건에 달함.

3) 조직관리 조정

□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자기업들이 WTO 가입을 전후로 재중 투자법인들에 대한 관리구조를 조정함. 이는 중국 지역 본사를 설립하거나 확대함으로써 중국 본사의 기능(인력자원, 재무, 연구개발, 조달, PR)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임.

4) 기업책임 강조

□ 중국내 외자기업들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강화됨.

- 외자기업 경영은 최대 목표는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주주뿐만 아니라 사회, 보다 나아가서는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환경보호 등)을 분담해야 함.

- 예를 들어 SONY는 생산과정 중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6가지 금속물질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1,000여 개에 달하는 협력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전체 산업사슬을 녹화(Green)함.

3. 외자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가. ‘라틴아메리카화’에 대한 우려

□ 외자기업의 발전과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최근 중국내 ‘라틴아메리카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여기서 말하는 ‘라틴아메리카화’란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부 라틴아메리카의 신흥 공업국에서 나타난 경제현상으로, 대규모 독점 자본을 이용한 다국적기업(외자기업)들이 주요 산업을 통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외자유치국의 국민경제 안전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나. 선진 기술 유치의 어려움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외자기업에게 여러 부문에 걸쳐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으나, 이를 통해 충분한 수준의 선진 기술을 유치하는 데는 실패하였다는 비판도 대두됨.

- 특히 현재 외국인투자의 주체별 형태를 보면 지분면에서 외자측이 지배주주인 기업이나 독자기업이 이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기술이전을 꺼리고 있어 시장개방을 통한 선진 기술 유치가 갈수록 어렵다는 지적임.

다. 다국적기업 독점에 대한 우려

□ 일부 시장에서 다국적기업의 독점이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 중국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시장은 이미 해외 소프트웨어 업체가 장악하였는데,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사(중국)의 데스크톱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시장점유율은 95%에 달함.

- 감광재료 업종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코닥 50%이상, 후지 25%이상임. 2003년 10월 코닥은 러카이(乐凯)가 양도한 러카이필름주식유한회사 지분의 20%를 인수하여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됨.
- 세계 테트라팩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스웨덴의 테트라팩은 중국 무균 테트라팩 시장의 95%를 장악함으로써 절대적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 이밖에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포함)시장에서도 다국적기업의 독점적 지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임.

라. 외자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우려

- 최근 외자기업들의 중국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늘어나는 데 따른 일부의 우려가 있음. 특히 일부 지방정부가 외자유치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외자기업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함.
-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일부 산업에서 외자기업의 독점현상이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산업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는 주장임.

마. 중국내 “경제안보 위협론”에 대한 논쟁

- 최근 중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경제안보 위협론”은 일부 전·현직 정부관리, 관련 산업협회, 글로벌화 위협론을 강조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 지멘스와 하이신(海信)간 상표 등록 분쟁, 네슬레 분유의 요오드 기준치 초과 문제, SKII 화장품 사태, 와하하(娃哈哈)와 다농간 쟁의 등에서 나타난 일부 중국 언론의 외자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도 “경제 안보 위협론”의 주장을 부추김.
- 그러나 왕즈러(王志樂) 주임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안보가 보다 강화되었으며,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지금의 경제안보 수준이 가장 높다고 평가함.

- 그는 산업안보에 큰 위협을 줄 것이라고 일부 중국 언론이 제기한 쉬궁(徐工)의 인수합병, 수버얼(蘇伯爾)의 인수합병 등의 문제를 직접 조사한 결과,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국가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 또한 그는 “경제안보 위협론”을 포함 대외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기본입장은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힘.

- 후진타오(胡錦濤)주석은 러시아 방문 직전 러시아 기자들과의 인터뷰(3.25)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기본 방침을 지속적으로 견지할 것이며, 개방 확대를 통해 중국의 투자환경을 더욱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함.

4. 평가 및 전망

가. 외자기업에 대한 대응 방향

□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외자기업의 급속한 중국 진출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기를 맞아 대외개방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최근 중국내 대외개방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치우쳐 이에 대한 방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외자기업의 역할이나 문제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각국이 가진 경제적 자원을 흡수·통합하여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자세가 보다 중요함.

나. 외자정책 전망

□ 중국정부는 이미 개혁개방 이후 28년 동안 7,000억 달러 규모의 외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경제 고 성장을 이룬 경험이 있음. 이를 바탕으로 향후 외자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외자정책은 새로운 조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임.

- 외자유치의 목표는 경제 고성장에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정책주도로부터 시장주도로, 외자의 선별적 유치와 산업우대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 중국 외자기업의 기회와 도전

□ 최근 외자기업 투자와 관련된 일부 정책들이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어 외자기업들의 중국내 경영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됨.

- 여기에 해당되는 외자관련 정책들은 기업소득세(양세합병), 수출환급세 취소 및 하향조정, 가공무역정책(804가지 금지품목), 토지정책, 노동계약법, 환경보호 및 개발구 관련 정책 등임.

□ 이러한 변화들은 외자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환경보호 및 노동자 권익 보장 노력, 지역 커뮤니티 발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기술혁신, 노후 공업기지 개선, 중서부 개발 등)에 공헌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

<질의·응답>

질문 1: 중국내 외자기업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환경보호 등) 강화 측면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한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답변 1:

SHELL社와 BASF社가 대표적인 경우임. 이 두기업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화학공업 기업임에도 환경보호에 앞장선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됨.

파나소닉(Panasonic)은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에너지 절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녹색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SONY는 녹색제품, 녹색생산, 녹색산업사슬을 실현하였으며, 신일본제철은 고체 폐기물 처리를 연구하고 있음.

질문 2: 현재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로운 외자를 선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는 WTO 정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답변 2: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로운 외자유치를 지지하고 있지만 강제적인 규정은 없음. 환경보호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음.

향후 중국의 외자유치는 정책주도에서 점차 시장주도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기준에 도달하는 외자는 모두 중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임. 절강성의 하이닝(海寧)현의 경우 전국 피혁제품의 1/3을 생산하고 있으나, 하이닝현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피혁공장을 내몰고나 신장성으로 이전시킴.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환경오염 대책이 될 수 없음.

과거 중국 각 지방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진입을 허용하였으나, 현재 중국이 환경보호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들은 진입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외자기업들도 달라진 환경에 부응하여 국제기준 준수에 입각한 해외진출을 도모해야 할 것임.

질문 3: 외자기업의 서부지역 투자에 대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것인가?

답변 3:

우선 일부 연해지역의 오염유발 산업이 일부 서부로 이전하였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지는 절대로 없을 것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지역적으로 양세합병의 실시가 상대적으로 느려질 가능성이 있음. 예를 들어 현재 중경시는 중앙정부의 비준을 받아 외자기업에 대해 15%의 기업소득세율을 보다 오래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중국정부는 향후 지역별 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산업별 혜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

질문 4: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이 라틴아메리카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외자유치 정책과 다른 점은 무엇이며, 중국은 대국으로서 장기간 외자유치 장려 정책을 견지할 것인가?

답변 4: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외자유치는 동아시아국가들과 달리 대부분 수입대체가 그 주목적임. 즉 외자유치를 통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하는 것임. 이에 비해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의 외자유치 목적은 수출 증대에 있음.

중국의 외자유치 전략은 라틴아메리카와 다르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전략과 비슷한 점이 있으나 차이점도 존재함. 중국은 여전히 대규모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고, 수입대체전략과 수출주도 전략을 결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외개방을 통해 장기적인 외자유치 전략을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됨.

질문 5: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자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내 외자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답변 5:

외자기업은 중국 제조업 생산량의 30% 내외, 수출의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자기업에 대한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 첫째, 외자기업을 중국기업과 동등하게 인식하는 견해임. 이는 2007년 들어 외자기업에 대한 정책 조정의 밑바탕이라 할 수 있음.

이와 달리 외자기업은 외국기업이라고 인식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차별대우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음. 예를 들면 중국정부가 물자를 조달할 때 외자기업에 우선하여 국내기업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에 해당함. 이는 외자기업이 중국기업의 시장을 잠식했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함. 그러나 자동차시장, 일부 전자제품 및 핸드폰 시장을 예로 볼 때 외자기업의 중국 진출은 중국기업들과 함께 새롭게 시장을 창조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는데 기여한 것이라 볼 수 있음.